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7. 12.



차이완 시대의 부상과 대응

I. 차이완 시대의 부상

○ (ECFA 체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차이완 (Chiwan=China+Taiwan) 시대가 본격 개막됨

-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무역 분쟁 타협 메커니즘¹⁾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협정으로 높은 단계의 FTA와 비교해서는 개방과 통합의 폭은 작음
 - 중국과 대만은 추후 협상을 통해 ECFA를 높은 수준의 FTA 단계로 발전시킬 전망
- ECFA는 물품 무역, 금융,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지적소유권, 세이프 가드, 경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ECFA의 본문은 서론,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 조기수확 및 기타 5개 장 16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
 - ECFA 발효 후 6개월 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 관련 추가적 시장 개방에 협상 재개

< ECFA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공 통		- ECFA의 본문은 서론,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 조기수확 및 기타 5개 장 16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 - ECFA 발효후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시작 - ECFA 발효후 6개월 내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관련 추가적 시장 개방에 협상 재개 - 대만측 요구로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명기
중 국	무역	- 중국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5개 분야에서 539개 상품 품목 개방 - 539개 품목은 ECFA발효 후 2년 내에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여 3년차부터 완전 무관세화 하기로 함
	금융, 전문 서비스	-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전문설계, 영화, 병원, 민영 항공 수리 등 11개 서비스 분야 개방 - 금융서비스는 보험, 은행, 증권 분야를 조건부 개방 함 ·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경영 경험이 30년 이상, 중국 시장 진출 후 대표 회사 설립 2년 이상 등의 조건 만족시 대만 보험회사의 인수합병 가능
대 만	무역	-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송공구등 6개 분야에서 267개 품목의 개방 - 267개 품목은 ECFA발효 후 2년 내에 3단계에 걸쳐 관세 인하여 3년차부터 완전 무관세화 하기로 함
	금융, 전문 서비스	-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영화,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 서비스 등 9개 서비스 분야 개방 - 금융서비스는 은행 분야만 개방함 · 대만에 중국은행의 진출을 허가 받아 대표 회사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지점 설치 신청 가능

자료 :대만 경제부

1)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aiwan.

- 특히, 중국과 대만은 양국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도 완화
 -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에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을 포함해 중국의 對대만 관세 인하 항목은 539개를 차지, 대만의 對중국 관세인하 항목은 267개를 차지
 -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대만의 평균 수입관세율 보다 높음에 따라서 조기 자유화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는 대만 수출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대상 >

항목	對대만 관세인하항목	對중국 관세인하항목
조기수확품목 (개)	539	267
해당품목의 수출액 (억 달러)	138.3	28.6
수출총액 대비 비중 (%)	16.1	19.5

< 관세인하 내용 >

	관세 인하 내용
중국의 대대만 수입 제품 관세 인하 계획	현행 5% 미만 관세 → 영세화 현행 5~15% 관세 → 1년차 5% 관세, 2년차 영세화 현행 15% 이상 관세 → 1년차 10%, 2년차 5%, 3년차 영세화
대만의 대중국 수입 제품 관세 인하 계획	현행 2.5% 이하 관세 → 1년차부터 영세화 현행 2.5%이상~7.5%이하 관세 → 1년차 2.5% 관세, 2년차 영세화 현행 7.5% 이상 관세 → 1년차 5%, 2년차 2.5%, 3년차 영세화

자료 :대만 경제부, KOTRA

- 중국과 대만은 합작으로 산업·기술 기준을 설립하고 에너지, 철강, 통신 분야의 국유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동맹과 협력을 활성화²⁾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업들로 발전시킬 계획
 - IT 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본력과 대만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차이완의 IT 기업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됨
 - 양국간의 경제단체의 상설 대표 기구를 설립하여 산업구조 재편 등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협력 강화

2) Hong & Tong "Taiwan-mainl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Implic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EAI Background Brief No. 452.

II. 차이완 형성 과정과 배경

○ 중국·대만 경제 협력 발전 과정

-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4단계를 거치며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옴
 - 1단계(1979~1986년) : 양안의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 대립국 관계로 교류 미흡.
 - 2단계(1987~1995년) :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로 투자와 무역 모두 증가
 - 3단계(1996~2000년) : 정치적 긴장 및 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양안간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됨
 - 4단계(2001년~현재)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등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안정적 교류 단계에 진입하여 2010년 6월 ECFA를 체결

<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 시기별 추이 >

시 기	주 요 내 용
1단계 : 경제교류 탐색기 (1979~1986년)	- 양안의 경제 교류의 시작 단계로 중국의 삼통 정책 실시에 대해 대만은 삼불 정책과 삼불 원칙으로 대응함 ³⁾
2단계 : 경제교류 증가 (1987년~1995년)	- 대만 정부의 계엄령 해제와 제3국을 통한 방문 허용, 중국 정부의 대만 기업 우대정책으로 양안 간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됨 - 대만의 대중 투자는 1995년에 전체 투자의 40%를 넘어서고, 양안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37.3% 증가
3단계 : 정치적 긴장 고조 투자규제 강화 (1996년~2000년)	-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와 대만 통일 주장으로 양안 정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전환됨 - 대중 투자 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계급용인과 남향정책이 실시됨 · 제3국을 경유한 대중투자 허용, 기업별 자본금에 따라 투자 상한선 설정,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 산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함 - 양안 간 무역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성장세가 둔화됨
4단계 : 안정적 경제 교류 확대 (2001년 ~ 현재)	- 중국('01년)과 대만('02년)의 WTO 가입과 대만의 대중경제 교류 규제 완화로 투자와 무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대만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차지하는 대중 투자의 비중이 2005년 이후에는 70%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점유율은 30.1%, 수입 점유율은 12.7%를 차지함 - 2010년 6월 29일 충칭(重慶)에서 열린 제 5차 양안회담에서 양안 경제협력체제협정(ECFA)을 체결

자료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8년 4월.

3) 중국의 3통 정책은 통상(通商)·통항(通航)·통우(通郵). 대만은 1980년에 3불 정책(불접촉,

○ (중국·대만 경제 협력 배경)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제고 및 중화 경제권 영향력 확대

- (중국) ECFA 체결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중화민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짐
 - 중국은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중화 경제권내 자국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추진
 - 중국은 동포국가인 타이완의 경제적 포용과 통합을 통해 역내에서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협력기본협정을 통해 역내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계기로 활용
- (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양국의 무역 활성화 필요 및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FTA 체결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ECFA 체결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대중국 수출 시장 필요
 -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체결, 대만과 미국의 FTA체결 실패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GDP의 64%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는 대만 제1위의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3위의 경제 실체인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촉매로써의 역할을 함4)

< 중국과 대만의 협력 배경 >

	중 국	대 만
경제적	- 대만에서 부품과 기계를 수입해 수출품을 만들기 때문에 ECF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중국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대중국 수출 시장 필요 - 대만은 미국과의 FTA 체결 실패로 인한 위기감으로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정치적	-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중화 경제권내 자국 영향력 강화를 목적	-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대만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 경제 및 정치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불담판, 불타협)을 발표하였으나 1994년에 3불 정책을 폐지함.

4) Terry Cooke, "China Brief", *Journal of Analysis and Information*, The Jamestown Foundation, Washington, Vol IX(11), May, 2009.

Ⅲ. 차이완의 파급 영향

○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 상승

-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 비중이 증가하며 중화 경제권 영향력 확대로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이 상승
- 중국과 대만의 GDP 규모 : 중국의 GDP 규모는 1993년 6,132억 달러에서 2009년 4조 9,08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을 합한 GDP는 동기간 8,443억 달러에서 5조 2,878억 달러로 급증⁵⁾
-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대비 비중 :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1993년에 4.83%에서 2009년 12.5%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의 비중은 1993년 5.73%에서 2009년에 13.5%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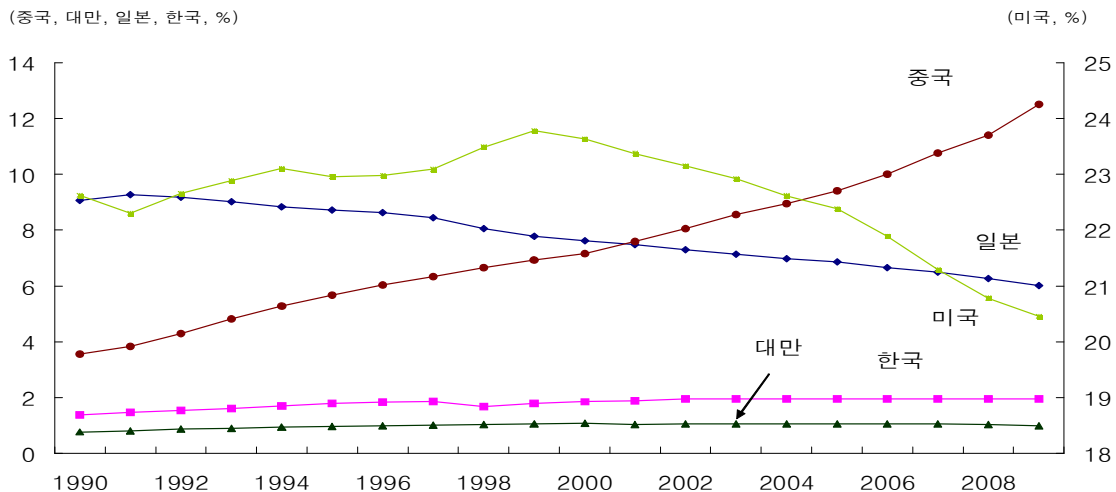
< 아시아 국가의 GDP 변화 >

(단위 : 십억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	1324.8	1453.8	1641.0	1931.6	2235.9	2657.8	3382.4	4519.9	4909.0
일본	4095.5	3918.3	4229.1	4605.9	4552.2	4362.6	4378.0	4887.0	5068.1
대만	293.7	301.1	310.5	340.0	364.8	376.3	393.1	402.7	379.0
한국	504.6	575.9	643.8	722.0	844.9	951.8	1049.2	931.4	832.5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0.

< 세계 GDP 비중 >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0.

주 : 세계 GDP 비중은 PPP(purchasing-power-parity) 기준.

5) 주요국 GDP는 달러표시 현재가격.

○ 금융 영향력 증대

- 차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 채권 보유액은 달러가치 변동 및 미국 채권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
- 차이완의 외환보유고 : 중국과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009년 말 기준 2조 7,474억 달러로 기록. 2010년 현재 2조 8,0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
-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 :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2002년 2,510억 달러에서 2009년 1조 5,77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9년 현재 미국 채권 시장 총액 9조 6,410억 달러 대비 16.4%를 차지

<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 현황 >

(단위 : 억 달러, %)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	2,156 (16.3)	4,033 (24.6)	8,189 (36.6)	15,282 (45.2)	19,460 (43.1)	23,992 (48.9)	24,471
대만	1,222 (41.6)	2,066 (66.5)	2,533 (69.4)	2,703 (68.8)	2,917 (72.4)	3,482 (91.9)	3,601

자료 :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ines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2) CRS, China's holdings of U.S. securities: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2009년 2월.
 3) 한국은행 DB.
 주 : 1) 외환보유고 규모는 각년도 말 기준 (2010년은 중국은 3월말 기준, 대만은 5월말 기준).
 2) () 안은 외환보유고의 각국 GDP 대비 비중(%)

<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 현황 >

(단위 : 억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	1,810 (4.2)	2,550 (5.2)	3,410 (5.7)	5,270 (7.7)	6,990 (9.0)	9,220 (9.4)	12,050 (11.7)	14,640 (15.2)
대만	700 (1.6)	880 (1.8)	1,240 (2.1)	1,260 (1.8)	1,352 (1.7)	1,210 (1.2)	1,497 (1.5)	1,131 (1.2)
미국의 총 채권 규모	43,380	49,786	60,063	68,643	77,776	97,720	103,220	96,410

자료 : 1) U.S. Treasury Department, Foreign Portfolio Holdings of U.S. Securities, 2009년 4월, 6월.
 2) CRS, China's holdings of U.S. securities: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2009년 2월.
 주 : 1) 채권 보유 시점은 각년도 6월.
 2) () 안은 총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 (중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구조 심화)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10개가 같은 품목으로 두 나라의 對중국 수출 상품 구조가 유사
- IT 품목인 전자직접회로, 액정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 인쇄회로 품목들을 대만이 한국에 비해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은 대만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ECFA의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에 석유화학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석유화학 수출은 감소할 전망

< 2010년 양국 수출 상위 15대 품목 비교 >

(단위: %)

	한국		대 만	
	품목명	중국 시장 점유율	품목명	중국 시장 점유율
1	전자직접회로	14.4	전자직접회로	23.8
2	액정 디바이스	36.2	액정 디바이스	37.5
3	석유와 역청유	24.0	반도체 디바이스	19.0
4	사무용기기부분품	21.6	폴리카르복시산	37.1
5	전화기 및 기타송수신기	18.4	사무용기기부분품	13.7
6	폴리카르복시산	42.2	스티렌 중합체	39.5
7	환식탄화수소	27.6	인쇄 회로	21.5
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12.5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25.0
9	반도체 디바이스	10.9	폴리아세탈수지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19.9
1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29.5	비환식 알코올	14.0
11	프로필렌 중합체	29.1	환식탄화수소	13.5
12	인쇄 회로	18.2	동의 박	41.1
13	스티렌 중합체	29.7	플라스틱제	49.3
14	에틸엔 중합체	15.0	비환식탄화수소	29.7
15	축전지	33.1	전화기 및 기타송수신기	5.0

자료: 한국 무역 협회, 2010년은 1월부터 5월 까지 자료임.

주: HS 4 단위 기준

(8542:전자 직접회로, 9013:액정디바이스, 8541:반도체디바이스, 2917:폴리카르복시산, 8473:사무용기기부분품, 3903: 스티렌 중합체, 8534:인쇄회로, 9001: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3907: 폴리아세탈 수지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2905:비환식알코올, 2902:환식탄화수소, 7410:동의 박, 3920: 플라스틱제, 2901:비환식탄화수소, 8517: 전화기 및 기타송수신기, 2710:석유와 역청유, 870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3902: 프로필렌 중합체, 3901: 에틸엔 중합체, 8507: 축전지)

○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 (한국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ECFA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로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⁶⁾
 -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 동등한 최혜국관세⁷⁾를 부과하였으나 ECFA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면 관세변화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 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중국의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로 큰 피해가 예상

< 중국의 대한국과 대대만 품목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 규모 >

	중국이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국이 대만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 (백만 달러)
광학 장치와 기구	8.48	8.37	13,563
중질유 및 역청유	6.61	6.61	4,907
탄산수소 유도체	2.12	2.60	4,267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0.00	0.03	3,887
카르복시산 화합물	7.07	6.95	3,227
전기회선 장치	1.60	0.91	2,719
전기장비	7.68	3.23	2,476
일차 플라스틱류	7.41	7.41	1,994
구리	3.93	4.57	1,971
일차 스티렌 중합체	7.90	8.48	1,702
밸브류 및 트랜지스터	1.11	0.08	1,656
통신장비 및 부품	8.37	8.26	1,304
소계			43,673

자료 : WITS DATA, UNCTAD TRAINS.

주 : SITC revision 3, 3 digit를 이용 (단, 관세는 weighted average를 이용).

- 6)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치상으로 비슷한 규모임.
- 7) 최혜국관세란 WTO의 최혜국대우원칙 하에 부과하는 관세로 최혜국 대우원칙이란 관세 및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 중국은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역내 금융 시장 및 세계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중국이 한국, 홍콩 등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 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대중국 의존도는 증가할 전망
 - 중국 중앙은행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중앙은행과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단위 : 억 위안)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총계
1,800 (2008년 12월12일)	2,000 (2008년 12월19일)	800 (2009년 2월8일)	1,000 (2009년 3월23일)	200 (2009년 3월11일)	700 (2009년 3월30일)	6,500

자료 : 내외신종합.
주 : () 안은 체결 시점.

- 중국은 홍콩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2009년 6월말에 합의한 가운데 홍콩은 위안화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위안화의 영향력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2월 24일 인근 교역 상대방과의 무역 거래에서 시범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함
 - 중국은 무역거래에서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 중
 - 중국의 원난성과 광시좡족 자치구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시 위안화 결제가 허용될 예정
 - 한국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가운데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IV. 시사점과 대응 과제

1. 시사점

○ 실물과 금융경제 측면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악화될 우려 제기
 -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향후 차이완 시대의 진전으로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 둘째, 차이완의 금융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달러 위주의 금융거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달러 위주의 금융거래는 위안화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

2. 대응 과제

○ 첫째, 한국 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
 - 한국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력 증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 투자 유도
 - 기술 개발 연구비 증대로 핵심기술 개발하여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늘리고 차별화된 수출 상품 개발
 - 컨설팅, 법률고문, 경제 발전 지식 전수와 같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로 고부가가치 증대 노력 절실
- 녹색 성장의 트렌드에 맞는 녹색 수출품 개발이 필요
 - 환경을 우선시 하는 수출 상품개발로 전 세계의 수요에 맞는 친환경적 상품 개발 노력 강화

○ 둘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의 FTA체결 가속화

-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노력
 -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차이완 경제 시대 도래로 인한 수출 감소를 방지
 - 또한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신흥국과의 FTA 체결 필요
 - 對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성장 잠재력 가진 남미,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이 필요
 - 중국·대만의 협력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노력 증대

○ 셋째, 차이완 자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규제 완화

- 중국 및 대만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완화
 - 특히 국부 펀드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은 해소하고 차이완 자본의 국내 진입 범위를 다양화하여 국내 투자를 증대

○ 넷째, 남북 협력 상생 추구를 위한 노력 강화

- 중국과 대만의 통합화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을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협력 측면에서 남북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노력 필요
 -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상호 경제 이익 획득과, 장기적으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사회·안보적 측면에서의 안정을 추구
- 셋째, 남북협력 측면에서 남북간 공동이익 추구 필요
 - 중국과 대만의 통합화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을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정민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